

# 노사상생도시 광주, 노동인권회관 건립

### 광주시, 노동인권회관 건립 위한 노·사·민·정 공동협약

### 남구 도침산단에 6876㎡ 규모 건립...노동인권·교육의 장



이용섭 광주시장이 29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노사상생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노동인권회관 건립추진 노사민정 공동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영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의장, 이용섭 광주시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의장,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광주시가 노사민정 사회대통합 실현을 위한 노동인권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2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노동인권회관 건립추진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협약식을 개최했다.

다. 협약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부의장, 윤영현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각 분야 대표자 4명은 노사상생도시 광주만들기 협력, 광주형일자리사업 성공을 위한 각 분야의 적극 협력, 노동인권회관 건립, 노동인권활동의 공동추진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건립을 추진하는 노동인권회관은 남구 도시점단산업단지 내 공공청사부지에 지상4층, 지하1층 전체면적 6876㎡ 규모로 들어선다. 노동인권 역사 전시관과 자료실, 교육 공간, 광주형일자리 아카데미, 노동자 복지·편의시설 등

을 갖추게 된다. 부지매입과 건축공사에 시비 200억5500만원을 투입하고 오는 10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22년 6월 까지 빛그린산단 내에 국·시비 450억원을 투입해 노사문화 정착과 사회갈등 예방, 중재, 조정의 거점공간인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시는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 노동인권회관을 노사상생과 사회대통합을 실현하는 양대 축으로 삼고 상호 보완·협력관계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지난 1월 세계에서 유례없는 노사상생 사회대통합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사업을 완성했다”며 “노동인권회관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노동자 권의 향상과 생활 수준 개선,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주’라는 노사상생도시 광주의 실현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전남도 내년 정부예산안 6조7000억

전남도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0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역 현안 예산 6조7000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는 전남의 미래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의 마중물이 될 신규사업으로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구축 사업 59억원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 7억원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구축사업 20억원 △전기 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 개발 75억원 △가성형 원료은행 구축 및 운영 5억원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85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비가 반영됨에 따라 향후 계획 수립을 통해 영광, 목포에서 여수, 순천을 거쳐 경남, 부산까지 이어지는 관광 콘텐트사업 발굴에 나서게 됐다.

장비 등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던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재난 안전관리시설 수준의 광양항 낙후부두 리뉴얼사업은 지난 9년간 담보상태였으나, 이번에 21억원이 반영됐으며 건조된 지 20

년인 된 노후 병원선 전남 511호 대체선박 건조사업도 설계비 4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은 △소형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20억원 △페플라스틱 자원화 소재개발 실증 기반 조성사업 19억원 △수송기용 마그네슘소재 실증기반 조성사업 20억원 △석유화학 부생 저급연료 재사용 공정 기술 개발 5억원 △AI 기반 수확용 스마트팜 로봇 개발 및 실증 20억원 △5G 확산사업 16억원 △첨단소재 융합부품 상용화기반 강화사업 20억 등이다.

전남도는 오는 9월4일 국회에서 열리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등 2020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정부안에 미 반영된 사업과 추가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영록 전남지사, 함평군 방문 간담회 개최

### 나윤수 권한대행 힘 실어주기

김영록 전남지사는 29일 함평군을 방문해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지역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권한대행체제에 놓인 함평군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소통을 통한 도-군간 상생협력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군청에 도착한 김 지사는 가장 먼저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을 만나 “군수

자리 공석이 군정공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권한대행체제가 무색할 정도로 치질 없는 군정수행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존 시·군 현장방문이 지역농가 등 민생현장을 방문한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번 방문은 약 8개월 가량 남은 권한대행체제와 이를 이룰 나 권한대행에 대한 ‘힘 실어주기’라는 분석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19년 1159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최 춘 (580115-1552811)  
최 후 주 소 : 광주 북구 양산제로 30, 201동 1402호(연제동, 한국아미러움)

위 망 최춘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8월 30일

공 고 인 : 조성현, 최원준, 최승준.  
주 소 : 광주 북구 양산제로 30, 201동 1402호(연제동, 한국아미러움)  
한정승인수리일 : 2019년 8월 16일  
공고기간 : 2019. 8. 30~ 2019. 10. 30

###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칙의 안전 보강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세력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간 서로 생명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신제 단체교섭 조항 등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전라남도노사민정조정제도실무위원회

## 동구 총장축제,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 수상

광주 동구는 ‘추억의 총장축제’가 29일 서울 KT올레스크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에서 혁신경영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고려대 빅데이터융합사업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은 전국에서 개최되는 축제 1,290여 개를 대상으로 관광, 소비, SNS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해 시상하는 국내 최초 빅데이터 축제시상식이다.

지난해 열린 ‘제15회 추억의 총장축제’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일정을 5일에서 3일로 줄였음에도 KT 빅데이터 분석결과 28만2천 명이 방문하는 등 성공적으로 치러져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서구,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청렴교육 실시

광주 서구는 지난 2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깨끗한 공직문화조성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

교육은 목포대학교 조주현 교수를 초청, ‘청탁금지법 및 갑질예방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및 갑질 예방 관련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 남구 각종 바우처 점검 나섰다

광주 남구는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대두된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남구는 29일 “구청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 사업 수행기관에서 수혜 대상자인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 각종 바우처를 적정하게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 북구, 곳곳 주말 문화예술 프로그램 풍성

광주 북구가 오는 주말 지역 주민들을 위해 풍성한 주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북구는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내달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앞 잔디밭에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돛자리 야외영화제’가 개최된다. ‘주민 돛자리 야외영화제’는 북구와 전남대학교가 손잡고 문화캠퍼스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교류 사업으로 이번 주에는 ‘리타랜드’가 상영될 예정이며 영화제에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선착순으로 돛자리 100개가 무료로 대여된다.

또한, 8월 30일은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양산호수공원, 31일에는 19시부터 20시까지 북구 청소년수련관에서 통기타 연주, 대중가요 등의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 광산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광주 광산구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특성조사와 가격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등 토지 2,851필지를 다음달 2~23일까지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1~6/30일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곳.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광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할 수 있다.

임형택 기자

###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